

특집

겨울철의 효율적인 돼지 영양관리

고능력 종돈의 영양 관리



이 기 영 본부장
(풍원종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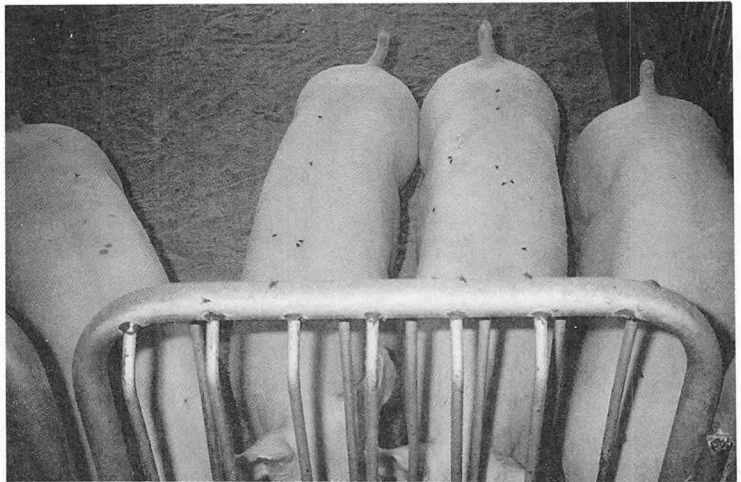
고 능력 종돈이 일반 농가에 많이 보급되면서 사양 영양 관리 혹은 시설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우선 고능력 종돈이 육돈 농가에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에 대한 겨울철 사양 및 영양 관리를 알아 보자.

첫째: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성장을 요구하는 쪽으로 개량 필요

둘째: 돈육 수출의 증가와 소비자 입맛의 고급화로 그에 맞는 육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량 필요

셋째: 생산성 향상(산자수, 이유두수, 출하일령 단축 등)을 위해서 개량 필요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내 많은 종돈장들이 해마



△ 후보돈 관리

다 많은 종돈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나름대로 육종 개량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종돈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보니 그에 맞는 사양 및 영양 관리등을 국내 조건에서 순화 시키지 못하고 혹은 종돈장에서 자금 관리 문제 및 육종학적으로 계통 조성이

어렵다보니 무계획적인 대륙간 교잡들을 생산 판매로 일반 농가에서 실패하는 비율이 높아 오히려 고능력 종돈을 피하는 쪽으로 가는 농가도 있다. 그러나 사료비 절감(빠른 성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1. 후보돈 관리

가. 100kg 전후

- "고단백 저열량 사료 급여"
- 각종 백신 접종 및 항생제 첨가
- 자유 급식(2.8~3.2kg/일 기준)
- 일당 증체량 400~500g 유지

나. 120~140kg

"고단백 고열량 사료 급여"로 발정 유도 및 종부(종부시기)

다. 첫 종부의 가장 좋은 시기

- ① 종부일령 F1 : 210~230일
순중 : 230~240일
 - ② 체 중 F1 : 120~130kg
순중 : 130~140kg
 - ③ 등지방두께(P2) : 18~20mm
 - ④ 3회 발정시 첫 종부
- ※ 등지방두께가 15mm 이하의 종부시 초산 분만 후 도태율이 상당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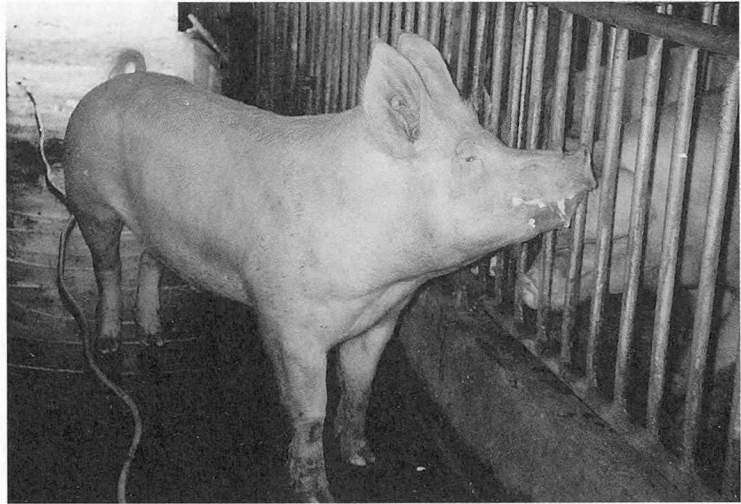
라. 겨울철 돈사내 온도

18~20℃ 유지(이하시 사료 증량 급여)
15℃ 이하일 때 미약 발정 및 발정 지연 등이 일어날 수 있다.

2. 웅돈 관리

가. 110kg 전후(일령 : 150~210일)

- "고단백 저열량 사료 급여"
- 자유 급여 2.8~3.0kg/일



△ 웅돈 관리

나. 130~160kg(210~300일)

- "고단백 고열량 사료 급여"
- 제한 급여 2.8~3.0kg/일
- Ca, P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영양제 급여
- 승가 훈련 및 주 1회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횟수 증가

다. 160kg 이후(300일 이후)

- 종돈 사료 급여

라. 웅돈의 체중별(일령별)로 사료 영양수준을 달리한 이유

- ① 유럽형 종돈은 대체로 후기 성장 속도가 빨라 체성숙의 성장과 성성숙의 성장 속도가 생후 10개월 정도 돼야지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
- ② 사료내의 Ca, P의 함량에 대한 흡수 및 용량 부족으로 체형은 근육형이지만 그를 바쳐주는 지체가 약해져 생후 10개월 이내에 지체 사고율이 높다.

※ 겨울철 돈사내 온도 16~20℃ 유지. 그 이하로 떨어질때는 정액량 감소, 활력 저하. 기형울 및 사정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재발율이 높아짐

※ 매년 9월과 3월에는 정기적으로 웅돈의 정자 및 활력검사로 고온과 한냉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3. 임신돈 관리

가. 초기

- "저단백 저열량 사료 급여" (임신돈 사료 급여)
- 제한 급여 2.2~2.4kg/일
- 겨울철 돈사내 온도 18~20℃ 유지(1℃ 떨어질 때 200g 증량 급여)

나. 중기

- "저단백 저열량 사료 급여"
- 제한 급여 2.4~3.0kg/일
- 겨울철 돈사내 온도 15~18

℃ 유지

- 돈사내 온도가 떨어지거나 체지방의 축적이 적을 때(중부시 16mm 이하)는 체지방을 축적시킬 수 있는 영양제를 급여

다. 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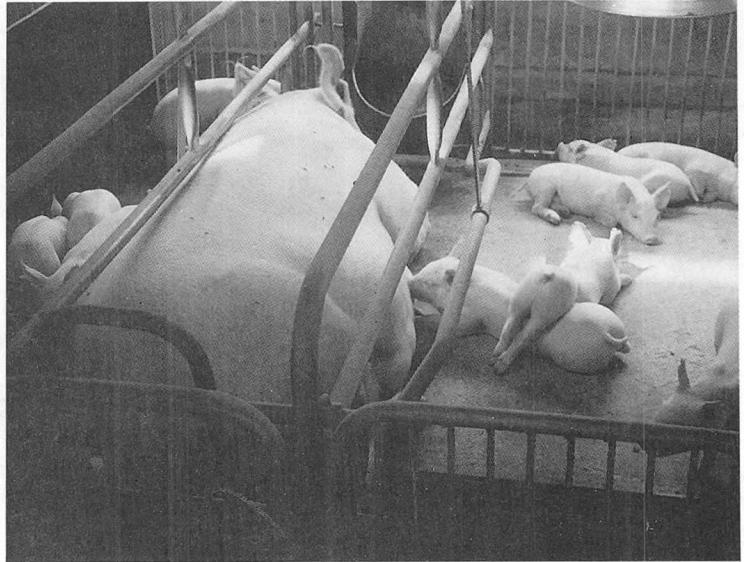
- “고단백 고열량 사료 급여”
- 제한 급여 2.8~3.6kg/일
- Ca, P의 흡수율을 도울 수 있는 영양제 급여(유럽중)
- 필요시 지방 성분의 영양제 급여
- 분만 3일전부터 감량 급여
- 겨울철 돈사내 온도 15~18

℃ 유지

라. 일괄적으로 한가지 사료(포유돈 사료)로 임신돈과 포유돈을 급여 했을 경우 모돈의 성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3~5산 사이에 산자수 감소 및 포유능력(유량)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체형이 너무 비대해져 산차가 낮을 때 사고 등으로 도태할 확률이 높아진다.

4. 분만돈 관리

- ① 고단백 고열량 사료 급여
- ② 분만 5일부터 최대한으로



△ 분만사 관리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

③ Body condition 상태가 2.0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조기 이유를 권장

④ 사료학자인 John Ston 등은 9.5~10두의 새끼를 포유시키고 하루 6kg의 사료를 섭취하는 모돈은 대략 1,060g의 단백질이 최대 산자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17.5% 조단백질 수준과 0.9% 라이신을 급여하면 모돈의 산자수와 이유자돈의 체중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낮은 조단백질과 라이신을 급

여 했을 경우에는 무유증 증상이 많이 발생 한다.

⑤ 최대한의 물 공급(급수기 이외의 물 공급)

⑥ 호흡기 대책을 위하여 분만 1주전부터 분만 1주간(2주간) 항생제 투여

쉽고 편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수입 개방, 사료비,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두당 생산 원가가 날로 커지고 있다. 말로만 연간 PSY 25두 생산이 아니라 실제로 정성과 시설, 종돈이 삼위 일체 되면 멀지 않은 시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리라 생각된다.

본지캠페인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